



스물네번째 이야기

불어권 아프리카의 교두보,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티켓팅 카운터 안내원의 당황스런 질문에서부터 코트디부아르로의 멀고 먼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시간만도 28시간이나 되는 참으로 지루하며 힘든 여정이었지만 열흘간 아비장에서서의 시간은 “가장 지구 서쪽 끝,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라는 외마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면상 다 언급하지 못함이 아쉽네요~)

불어권 북서아프리카의 교두보, 코트디부아르 BEE사역을 소개하기 전 먼저 그 시작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지난 2015년, 온누리교회는 창립 30주년의 특별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30주년을 맞이하며 온누리 선교분과 위원회는 그 동안의 선교사역을 정리 평가하였고, 선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적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융합선교 (Convergence Miss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온누리 선교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였습니다. 그 전략적 방향의 하나로써 북서아프리카에서도 선교적으로 열악한 불어권 지역에 대해 융합선교의 적합성을 논의하였으며, 허브국가로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지역이 선정되어 2015년 1월 불어예배가 처음으로 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융합선교 전략에 발맞추어 BEE는 아비장 한인교회(백성철 담임 목사)와 IPTESI(장로교 신학교) 졸업생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성경 연장교육을 맡기로 협약을 체결하였고(2015. 11. 17), 현지 선교사님과 본부에서 파송한 인도자를 통해 2년 반 만에 첫 DPM 과정을 마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여정을 통해 얻게 된 귀중한 의미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트디부아르는 불어권 북서아프리카 사역의 교두보입니다. 아프리카 54개국 중에서 24개국이 불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역은 90%가 영어권 아프리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불어권 아프리카 기독교 인구는 영어권 아프리카(60%)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치며 그 중 대부분인 카톨릭 신자를 제외하면 개신교 인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면에서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불어권 최전방 선교지입니다.

둘째, BEE는 온누리 교회의 해외 융합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뿐만 아니라 그 외 선교지역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복음에 대한 본질성과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혼선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대일과 BEE의 접목은 융합선교의 가장 근본인 바른 복음을 전수하는 매우 효과적인 융합선교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비장 한인 교회는 해외 선교적 교회의 귀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온누리 교회는 하나의 지역교회의 개념을 넘어 세계적인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도 언급되었듯이 개별적 선교에서 벗어나 전방위 선교(Total Mission)라는 융합적 선교를 통해 국내외의 선교적 교회를 배가해 나가는 것이 최종 과제임을 감안하여 볼 때, 아비장 한인 교회에서의 한인 목회와 현지 선교적 사명(신학교 운영, 현지인 교회 개척과 운영 지원)을 전 교인을 통해 감당하고 있음은 또 다른 ‘온누리다움’이며 선교적 교회의 귀한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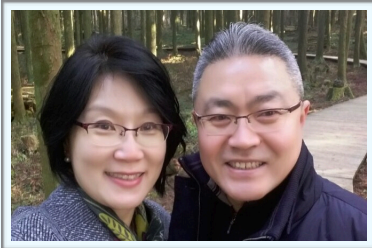


비록 그 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목도하기엔 너무나 짧은 여정이었지만 그 동안 북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준비해오신 양재 온누리 불어 예배팀 담당 장로님(임훈)과 두분 권사 팀장님께서 함께한 여정이기에 무엇보다 소중했으며, 매년 방학 기간마다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홀로 오가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

오신 백인호 목사님과 가나에서 사역하시면서 두 나라를 품고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용달 선교사님께 하늘의 크신 상급을 구합니다.

앞으로 불어권 아프리카 땅, 코트디부아르에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아멘^^

(글:정동기, 편집:이경주)



글쓴이 정동기목사(1965년)는 대학생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어 이랜드 해외 사업부 (해외 전략팀장)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행복하던 중 큰딸(지운)의 청각장애 판정 받고 선교사로 결단하였다. 신학과 10년간을 선교사(피지 신학교)로 보낸뒤 2007년 온누리교회와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BEE와 함께 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테이블리더와 교도소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BEE 소식

- 박은형선교사님. 정은희선교사님. 박영근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체류중이십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